한나라 두자릿수 득표율 고무됐나

〈6·2 지방선거〉

시도위원장 선거 광주 4명·전남 2명 경쟁

대의원 선출 등 잇단 잡음 속 과열 양상도

한나라당 광주·전남 시·도당 위원장 선거가 과거와 달리 뜨거워졌다.

6일로 예정됐던 한나라당 전남도당 선거가 잠정 보류된데다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는 과열양상을 띠면서 중앙당으로부터 중지명령까지 내려졌다. 하지만, 좀처럼 그 열기는 식지않고 있다.

이는 지방선거 사상 처음으로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지역 두자릿수 득표율을 올린 탓에 중앙당의 '관심'까지 높아지면서 후보들이 많아진 까닭이다.

여기에 향후 권역별 비례대표, 석패율제도 등의 도입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에서 비례대표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 것도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5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현재 광주시당위원장 후보군으로는 김광만 전 시당위원장과 정용활 서구 갑 당협위원장, 김정업 광산을 당협위원장, 송환기 전 광산을 부위원장 등 4명이 거론되고 있다. 과거 시당위원장 선거의 경우 2명 정도가 경쟁을 벌인 것에 비하면 후보가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광주시당은 지난달 말 시당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후임 위원장 선출 절차를 밟았으나 대의원 선정 과정이 문제가 되면서 중앙당으로부터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전임 위원장 임기만료에 따른 당연직 및 선임직 대의원 선출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면서 중앙당 지침과 어긋난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위원장 선거 후보가 많아지면서 과열양상을 띠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위원장 선거가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남도당위원장 선거는 후보 등록을 마친 김문일 담양·곡성·구례 당협위원장과 정훈 국민통합행동본부 총재의 대결로 6일 치러질 예정이었다. 김문일 위원장과 정 훈 총재는 일찌감치 출마선언을 선언한 뒤 사실상 당원과 대의원을 접촉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전을 펼칠 예정이었지만, 중앙당의 조치로 잠정 보류되면서 후보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각 후보들에게 대의원 명부가 제공된데다 후보등록까지 마친 상태에서 경선이 보류된 것은 다분히 이례적이어서 당 안팎에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잠정 보류 이유는 8·15 개각과 당 조직 인선이 마무리된 뒤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정을 결정한다는 중앙당의 방침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지역 당협위원장 등에 대한 인적 쇄신을 추진하려는 중앙당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대선을 겨냥한 계파 간 경쟁구도가 치열한데다 호남 몫의 임명직 최고위원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도 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나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 광역단체장 후보가 두 자릿수 득표율을 올리는 등 호남에서 최근 한나라당 정서가 변화하고 있는데다 중앙당도 이 부분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거와 달리 후보군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반총장 손 부여잡은 원폭피해자 일본 나가사키시에 사는 재일한국인 원폭 피해자 권순금(84)씨가 5일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손을 부여잡고 있다. 반 총장 오른쪽에 있는 이는 일본 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 대표위원인 다니구치 시미테루(81)씨. /연합뉴스

日 총리 "韓 식민지 지배 반성 담화 검토"

'무라야마 담화' 수준 될 듯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발표하는 담화의 내용은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 수준이 될 것이라고 현지언론이 5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조간에서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간 총리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해 과거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는 담화를 발표할 계획이며 내용은 1995년 무라야마 담화의 범위내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2차세계대전 종전 50주년인 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총리는 "과거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의해 아시아 여러나라 국민들에게 큰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면서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 신문은 민주당 내에서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담화를 발표할 경우 아시아의 다른 국가와 균형이 맞지않는다는 신중론이 있는 점을 감안해 각의(내각회의) 결정이 필요한 담화로 할 지, 각의 결정이 필요없는 '총리 코멘트' 수준의 담화로 할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교도통신은 간 총리의 담화가 각의의 결정을 거쳐 발표될 것이며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사죄와 반성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간 총리의 담화는 종전 65주년인 이달 15일 또는 그 이전에 발표하는 방향으로 조율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李대통령 귀경…'휴가 보따리' 뭘 풀까

개각 폭 8~10명 전망…10일께 단행 예정

후반기 국정기조는 '친서민-상생-통합'

이명박 대통령은 여름휴가 마지막 날인 5일 집권 후반기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구상을 마무리하는 데 몰두했다.

지난달 말부터 가족들과 함께 국내 모 휴양지에서 휴식과 함께 정국 구상을 해온 이 대통령은 전날 밤 청와대 관저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하루종일 관저에 머물면서 후임 총리를 포함한 개각 명단을 완성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했으며, 8·15 경축사에 반영될 후반기 국정운영 구상도 세밀하게 가다듬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말에 개각 인선 구상을 마치고 다음주 초인 9~10일께 개각 명단을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개각은 최소 절반이 넘는 장관이 바뀌는 대폭에 가까운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후임 총리는 나이와 관계없이 친서민과 소통을 상징하는 인물이 될 것이란 얘기가 들린다.

개각 범위는 장관 15명 가운데 적어도 8명, 많으면 10명까지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후반기 국정운영 기조는 ▲친서민 중도실용 ▲계층간 상생 ▲국민 통합 및 대국민 소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계층간 이동과 소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연내 1~2명 특진"

강운태 광주시장 밝혀

강운태 광주시장은 5일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다음 인사에서 공무원 1~2명을 특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민선 5기 첫 인사를 단행한 직후 "시민에게 칭송을 받는 공무원,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가져오는 공무원, 창조도시 아이디어를 낸 공무원 등은 우대해야 한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승진 연한을 넘기면 배수에 상관없이 특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근무평점에 따라 최소 4배수 안에서 승진자를 정했던 기존 인사 관행을 파괴하는 것으로,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에게 승진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현석기자 chadol@

"지천 수질개선 지원 증액" 검토

靑 4대강 후속대책 마련 주력

청와대는 5일 4대강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이 축소되는 분위기 속에서 후속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애초 이 사업에 반대했던 충남·북이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힌데 이어 경남도 "결정할 시간을 달라"고 하는 등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그동안 진행된 사업의 공사 진척 정도와 특히 장마철에 진행됐던 공사 구간의 안전 여부를 상세히 파악해 앞으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동시에 민주당이 제시한 4대강사업 대안의 쟁점별 타당성을 검토해 향후 추진 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다만 민주당이 보(洑) 건설과 준설을 줄이고 본류보다는 지류·소하천을 먼저 정비해야 한다는 데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보 건설 공정은 이미 40% 안팎 진행돼 되돌릴 수 없는 데다 준설 역시 보 건설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원래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앙 및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지방하천 개선 비용의 경우 중앙정부의 부담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北, 수해복구에 군인·대학생 대거 투입

기계장비 부족…삽·가래로 토사 걷어내

지난달 중순 이후 북한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해 군인과 대학생이 복구 작업에 대거 투입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이 5일 전했다.

이 방송은 '북한 사정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 "홍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군인과 대학생을 대규모로 동원하고 있다"면서 "군부대들이 주둔지 수해복구에 동원되고 대학생까지 나선 것으로 미뤄 상황이 아주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방송은 이어 "북한에서는 대학마다 여름방학 기간이 다른데 올해에는 학생들을 동원하기 위해 지난 1일 모든 대학이 일제히 방학에 들어갔다"면서 "피해가 큰 함경남도 함주군, 신흥군의 경우 함흥수리대학과 함흥사범대학 학생들이 피해 복구에 나섰지만 기계 장비가 부족해 삽이나 가래로 토사를 걷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엔 아동기금 아시아 사무소의 제프리 킬리 대변인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최근 유니세프 관계자가 북한의 홍수 피해 지역을 둘러보고 일부 기반시설이 파괴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하지만 북한 당국은 홍수 대책을 관장하고 있으며, 아직 국제사회의 지원을 공식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욕설과의 전쟁'

軍, 대대적 언어순화 선포

군 당국이 장병들의 언어순화교육에 나섰다. 욕이 없으면 말이 되지 않을 정도로 습관적으로 욕을 사용하는 일부 장병들을 대상으로 '욕설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5일 "장병들은 철없는 10대도 아니고 20대에 제대하고 사회생활도 해야 하는데 욕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생활을 하면 곤란하다는 취지에서 언어순화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지난 2일 열린 국방전략회의에서 장병들의 바른 언어생활 교육을 강화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부작용 거의없이 피부 재생, 탄력 살리고 주름 개선

비수술적 성형, '히알루론산 시술'

나이가 들수록 피부조직이 얇아지고 지방층을 잃어간다. 이로 인한 노화현상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위는 눈, 입주변 등에 만연하게 생기는 시간의 흔적이다. 이러한 노화현상은 이후 진행되어 이마에 주름이 생기고 입술 주변에 팔자주름이 생기게 된다.

과거에 성형 외과 수술에 의해서는 불가능 했던 자연스러운 주름개선을 주입에 의한 주름개선 방법이다. 특히 고주파 시술 이후 자연스러운 주름개선 시술을 병행하여 주름개선 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다.

이렇게 주름 개선 시술은 주로 눈 주변 입술 주변 이마 등 얼굴 전체 주름 개선 시술을 주로 하고 있다.

김 영 길 성형외과의원
☎ (062) 227-3777 무등국심 앞